

제1회 장수 달돋이페스티벌 성료

자체제작 다큐멘터리 상영·음악 공연 등 진행... 장계면 호수마을 아름다움 알려

장수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장계면 호수마을 입구에 위치한 카페 구하숲에서 '제1회 장수 달돋이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산골감상부(대표 신서영)에서 주최했으며 영화 상영을 비롯한, 음악, 요리, 캠핑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전북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달돋이페스티벌'은 장계면 호수마을의 자연경관을 알리는 복합문화행사를 선보여 장수군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낭만' 있게 표현했다.

또한 장수군의 3절 중 하나인 의암주논개에 탄생지인 주촌마을을 배경으로 산골감상부가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윤슬아리모실'을 상영해 실향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대곡호 아래로 사라져 버



장수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장계면 호수마을 입구에 위치한 카페 구하숲에서 '제1회 장수 달돋이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린 주촌마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신서영 대표는 "페스티벌을 통해 장계면 호수마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고, 자체제작 다큐멘터리 '윤슬아

리모실'을 통해 실향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장계면 호수마을이 장수군의 특별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관효호 기자

호남 최초 의병활동 순국선열 애국정신 기려

진안 마이산서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7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 거행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7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가 14일 진안군 마이산 남부 호남창의동맹단 의병 위령비 앞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호남의병 창의동맹단은 1907년 9월 12일 정재 이석용 의병장을 중심으로 진안, 임실, 순창, 장수, 남원 등지의 1,000여명의 의병들이 진안 마이산 남부 용암에 집결해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의병조직 동맹 결성을 결의했다.

이는 호남 최초의 의병활동으로 1909년까지 진안과 장수, 임실, 전주 등지에서 활기차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알리고 의로운



기상을 떨쳤다. 이에 호남의병창의호국제전위원회(위원장 박주홍)는 일제에 맞서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12일 추모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추모제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욱 군의장, 군 의원,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제전위원회 회원과 군부대 장병 등 150여명이 참석해 창의동맹을 맹세한 동맹회사 낭독과 경과보고, 헌화, 추모사, 제35사단 군악대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전춘성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일제에 맞서 불굴의 투쟁을 벌인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모제가 선열들의 거국적인 항일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숭고한 가치와 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민의 날에도 이어진 고향사랑 기부 행렬

진안군 출향인들이 연이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진안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제62주년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항우회(회장 정민열)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총 500

만원을 모금해 기부했으며 기부금액의 30%인 담례품 150만원도 불우이웃 돕기로 재 기부했다.

또한 재경진안군민회 정승현 명예회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0만원을 기탁해 귀감이 됐다.

이들은 "고향인 진안을 생각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

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을 잊지 않고 사랑해주는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항우회원님들과 재경진안군민회 정승현 명예회장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는 진안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16일 설천면과 11월 5일 무풍면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 농촌 왕진버스 달린다

16일 설천면·11월 5일 무풍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무주군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16일 설천면과 11월 5일 무풍면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설천면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되며 전주예수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28명)이 방문해 △암·항방진료(초음파 포함)와 △치과 검진 △안과 검진(동보기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과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 등 주민들로 직접적인 검진 외에도 기초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11월 5일(09:00~16:00)에는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무주군 무풍면 심습지

문화센터를 찾을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윤수진 팀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NH농협은행이 시행 주체로 같이 참여를 한다"라며 "병의원과의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놓치지 않고 농촌 왕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 운영 총사업비는 3천6백만 원으로 운영 지역당 최대 1천8백만 원(국비 40% 시·군비 30%, 농협은행 30%)이 투입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 수렴 접수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14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22일간 군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내 군민의 소리(부당행정 제보)에 올리거나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제보는 진안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명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뿔투구꽃 개화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안길성)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세뿔투구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개화했다고 밝혔다.

세뿔투구꽃은 남부지역 산지의 산기슭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덕유산에서는 9~10월에 관찰되며 연녹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하는 꽃은 옛 무사들의 투구 모양을 닮았다. 잎 모양 또한 가장자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삼각꼴 형상이라 세뿔투구꽃이라 불린다.

덕유산국립공원에서는 과거 한 방약재로 무분별하게 채취되어 서식지가 훼손되자 2016년부터 세뿔투구꽃 군락지를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점검·홍보

무주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 내 인식 확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나섰다.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반복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무주읍 지역 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 가능'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선을 넘거나 빗금 부분 주차 시에도 10만 원,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 원,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



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앞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며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차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